

▶1면에서 이어짐

또 글쓰기 1·2는 각각 '성찰과 표현', '주제연구'로 명칭을 바꾸고 수강학점 또한 2학점에서 3학점으로 늘렸다. 내용 면에서 성찰과 표현은 기존의 글쓰기 1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주제연구는 글쓰기 2의 소논문 쓰기가 아닌 '학술적 애세이' 쓰기로 전환한다는 차이가 있다. 후마의 고인환 글쓰기 PD교수는 "최근에는 학술논문도 형식에 치중하기 보다는 내용을 보다 중시하는 학계 경향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빅문은 보조교재인 다큐멘터리 '코스 모스'의 활용도를 높인다. 국제캠은 학생 평가가 나쁘지 않아 기존 수업 방식을 유지하지만 서울캠에서 앞서 도입한 토론, 질의응답 중심의 '플립 러닝(Flipped Learning)' 방식 역시 개발 중이다.

서울캠 빅문의 수강인원은 이번 학기부터 35~40명 선으로 조정한다. 국제캠 빅문은 전임교원의 자원으로 강의를 배당하는 특성상 강의자 수급 문제로 이번 학기에는 기존 정원을 유지한다. 그러나 2019학번부터는 이공계열(공과대학, 전자정보대학, 소프트웨어융합대학, 응용과학대학, 생명과학대학) 학생들이 전공 수업으로 빅문 이수를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추후 정원 축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기존 7개 영역으로 나뉘었던 배분이수 강의는 '창의교양'이라는 이름으로 둑어 '생명과 우주', '분석과 추론', '상징과 문화', '사회와 평화'라는 새로운 세부 구분을 적용한다. 여기에 전공과 교양을 잇는 '토대교양'으로 '자연기술 토대', '인문 사회 토대', '예술창작 토대'를 추가한다. 국제캠 후마 김성수 학장은 "타 전공과목을 듣고 싶지만 부담이 되는 학생들이 다양한 전공 지식을 배울 수 있도록 개설했다"라고 토대교양 신설 취지를 설명했다.

2019학년도 신입생부터는 새로운 7개 배분이수 영역 중 4개 이상 영역의 수업을 이수해야 한다. 2016학년도부터 2018학년도 사이에 입학한 학생은 영역 구분 없이 4과목, 2015학년도 이전 입학생은 5과목 수강을 필요로 한다.

한편, 본래 개편의 3대 목표 가운데 하나였던 평가 방식 전환은 이번 개편에서는 실현되지 않았다. 그러나 상대평가 방식에서 탈피해 자기평가, 동료평가, 교수 평가와 P/F학점제, 절대평가 방식 등 복합적인 기준을 도입함으로써 점수 위주 평가를 역량 중심 평가로 전환하자는 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수 학장은 "현재 여러 부분을 개정하다 보니 실질적으로 시간이 부족했다"며 "2020년도에 시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큰 그림 먼저"...행정 거버넌스 개편 본격화

박재령 기자 kpparr@khu.ac.kr

지난 1일, 행정 업무 효율 상승을 목표로 대학본부 행정 조직이 새롭게 개편됐다. 개편 방향은 '유사 부서 통합'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에 따라 본부 조직 5개와 단과대학 및 대학원 행정 조직 10개가 통폐합 수순을 밟아 새로운 부서로 재탄생했다.

개편 내용에 따르면, 우선 대학 내 전반적인 정책 기획 업무를 담당해온 미래정책원과 재정예산처가 '기획조정처'라는 이름으로 통합된다. 미래정책원 전략기획팀 층은 "그동안 구분 짓기 모호한 사안을 두 부서로 애써 나눠 업무 처리가 비효율적이었다"며 "같은 내용을 가지고 양 부서의 별도 의사결정 프로세스를 거쳐야 하는 경우가 그 예"라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별도의 프로세스를 하나로 통합하면 행정 효율이 높아지고 어디가 구심점인가 하는 책임 주체도 명확해질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또 하나의 개편 대상인 미래문명원과 지구사회봉사단, 인류사회재건연구원은 학술 사업과 사회 공헌 업무 등을 수행하는 부서다. 이번 개편에 따라 인류사회재건연구원과 지구사회봉사단의 행정 업무는 미

래문명원으로 통합된다. 전략기획팀 층은 "지금까지는 각 부서가 각자의 일만 하다 보니 업무 분야가 유사해도 큰 시너지 효과가 나오지 않았다"며 "실천 부서인 만큼 행정 업무 통합을 통해 큰 규모의 활동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단과대학들의 통합 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종합 행정실 구축은, 유사한 학문 분야에서도 대학원과 동일한 건물을 사용하는 단과대학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국제대학원과 국제대학원, 체육대학원, 체육대학원, 예술디자인대학원과 아트퓨전디자인대학원, 호텔관광대학과 관광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과 법학전문대학원이 각각 하나의 행정실로 통합된다. 기존 행정실 공간은 논의를 통해 다른 공간으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행정 거버넌스 개편은 대학본부와 노동조합(노조)이 유사 부서 통합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전반적인 방향을 잡게 됐다. 하지만 인력 배치와 조정 문제를 두고 양 층이 갈등을 겪으며 아직 완전한 수준의 조직 개편은 이뤄지지 못한 상태다.

앞서 대학본부는 '큰 틀'을 잡는 것이 먼저라는 목소리를 내며 개편을 이끌었다. 전략기획팀 층은 이번 개편을 두고 "집을 먼저 짓고 나야 가구 배치를 할 수 있다"고 전했다.

며 "큰 그림을 먼저 그리고 필요한 세부 사안은 추후에 같이 논의하면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의사결정 프로세스를 간소화해 행정효율을 높이는 것이 개편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며 "예산 절감이나 직원 조정은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것일 뿐이다"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노조 층은 추진 과정에서 일부 독단적인 면이 있었다며 논의가 불충분하다는 입장이다. 한상 노조 위원장은 "개편을 할 때 업무 재배치, 인력 배치, 근무 환경 등의 실무 사안을 한 번에 고려해야 했다"며 "학교에서 예산이나 비정규직 감축 등의 문제 때문에 현장 목소리를 충분히 듣지 않고 성급하게 조치한 게 아닌가 우려 된다"고 밝혔다. 이어 "일선에 있는 우리들과 충분한 논의가 없다면 업무 효율을 이루지 못할 뿐더러 실제 업무를 더 어렵게 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양 층의 대립이 이어짐에 따라, 개편의 완성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노조 층은 개편 후속 조치와 관련해 "학교가 우리를 동등한 협상대상자로 존중하는 메시지를 보여준다면 추후 논의에 참여해 책임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편의점부터 학생식당까지... 국제캠퍼스 편의시설 봄맞이 새단장

문하령 기자 moonbym@khu.ac.kr

【국제】 전면 개편을 마친 국제캠퍸스(국제캠) 편의시설들이 4일부터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다. 공과대학관(공대)을 비롯해 체육대학관, 국제경영대학관, 예술디자인대학관, 전자정보대학관(전정대), 국제대학관, 중앙도서관 등 6개 건물에는 편의점 브랜드 'GS25'가 동시 입점했다.

한편, 공대 편의점과 전정대 편의점을 제외한 모든 편의점들은 무인으로 운영된다. 박 과장은 "건물별로 구성원과 소통 및 협의 과정을 통해 유·무인 운영을 복합한 합리적인 운영시간을 마련했다"며 "향후 모니터링을 통해 탄력적으로 운영시간을 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대 편의점은 기존 학생식당 운영을 종료하고 '24시간 카페형 편의점' 형태로 개편됐다. 임성수(기계공학) 공과대학장은 "공대 학생회, 교수진과 논의한 결과, 학생식당보다 카페형 편의점이 비교 우위를 가질 것이란 의견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편의점이 새롭게 입점하면서 공대는 약 166평(548.42m²)에 이르는 기존 학생식당 공간을 전면 개·보수했다. 공간은 크게 매장 진열대·취식 공간·스터디 공간 등 3가지 형태로 구성됐으며, 스터디 공간은 나머지 공간과 분리 설치했다. 임 학장은 "스터디 공간은 학생들의 요청을 고려해 토론과 공동 학습에 적합한 오픈랩 형태로 마련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편의시설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까지 운영되며 주말과 공휴일에는 운영하지 않을 계획이다. 다만, 공대 편의점은 평일 24시간, 주말·공휴일 방학 중에는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된다.

학생식당 위탁업체에도 변화가 생겼다. 앞서 지난해 12월 진행된 학생식당 위탁업체 제안업체 평가에서, 제2기숙사 학생식당을 운영 중인 삼성웰스토리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이후 동계 방학 동안 공사 및 준비 기간을 거쳐 학생회관 교

직원 식당이 지난달 26일 먼저 열렸고, 학생식당은 1학기 개강에 맞춰 오픈됐다. 계약기간은 2년이며 기간 종료 후 평가를 통해 1년 단위로 최대 2년까지 재계약할 예정이다. 우정원은 오는 2020년 시행될 대규모 리모델링으로 인해 올해 12월까지 임시로 삼성웰스토리 층에서 운영을 맡게 됐다.

위탁업체 변경에 따라 학생회관 학생식당에는 테이크아웃 시스템이 새롭게 도입된다. 삼성웰스토리 한보경 영양사는 "선식, 샐러드, 샌드위치 등 다양한 테이크아웃 제품을 마련했다"며 "바쁜 학생들을 위해 상시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이밖에 일일 한정으로 판매되는 세프 스페셜 메뉴와 각 2종이 제공되는 한식과 양식요리가 2,500원에서 7,000원 사이로 제공된다. 결제 방식은 식권 도난·위조 방지를 위해 카드 결제로 통합됐다. 학생회관 학생식당 운영 시간은 이전과 동일하다.

호수와 바다를 한눈에 감상할 수 있는 당진십교호관광지 수도권과 가까운 최적의 휴양지!



녹색병원
지역 주민, 노동자와 함께 만들어 가는
편안한 병원 | 돌보는 병원 | 따뜻한 병원
www.greenhospital.co.kr

민간형 공익병원 **녹색병원**은
환자의 건강문제를 함께 치료하는 동반자로서
건강한 지역,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원장 김봉구 (81학번 · 의학과)

서울특별시 중랑구 사가정로 49길 53(면목동) 녹색병원
Tel 02)490-2168

(주)디엑스
대표이사 이 용 택 (국제경영00)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77길 15 우양빌딩 2층
Tel.(02)539-2370 Fax.(02)539-2371